

서평의 공격성과 저자의 의연함

미국작가 E. 몰디아는 지난해 조직범죄가 미식 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책 「간섭」을 펴냈는데, 이 책에 대한 뉴욕타임지의 서평이 부당하다고 해서 중상모략죄로 뉴욕타임즈를 법원에 제소, 1천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얼마전 국내신문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는 이 외신은, 그것이 서평에 대한 저자의 혐오감이 극도로 에스컬레이트된 드문 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몇가지 점을 생각해 한다.

첫째는 “그쪽도 별 수는 없구나” 하는 식의 일종의 천박한 동류의식이다. 굳이 천박하다고 한 것은 몰디아의 경우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서평에 대한 우리나라 저자들의 반응 또한 그렇게 품위가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례사비

평’에만 익숙해 있는 일부 저자들이 문제이다. 서평전문지를 표방하는 「출판저널」 편집자로서의 개인적 경험을 소개하면, 가령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적지 않다.

우선 서평 대상이 된 책의 저자가 그 서평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편집자에게 전화로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항의의 거의 100%는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다소’ 공격적인(‘전적으로’ 공격적인 서평은 우리에게 극히 드물다) 서평에 대해 제기되는데, 문제는 서평에 대해 느끼는 저자 자신의 못마땅함과 항의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해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들 하는 데 있다. “그럴 바엔 전화는 왜 하나”하는 게 이때의 편집자의 솔직한 감정이다.

서평 대상이 된 책의 출판사 편집관계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역시 자신들의 불만을 전화상으로만 털어놓을 뿐, 그같은 불만을 저자도 같이 느낀다면 불만을 표현할 지면을 제공하겠다는 제의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최근 본지 제68호에 게재된 정운영씨의 서평으로 촉발된 정운영·북거일 양씨의 논전이 바람직한 서평문화 풍토를 일구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품는다.

그것은, ‘싸움’을 부추기고 그것을 즐기는 저널리즘 특유의 경박한 호기심에서가 결코 아니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감정의 니전투구’ 속에서 ‘자객논법’이 횡행함으로써 우리 논쟁사가 ‘구경꾼의 재미’만을 일으키던 때는 이제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공격적인 서평에 대해서도 ‘글로써’ 의연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아쉽다.

—강철주 부장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10월 1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시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72호(11월 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춘 독자중 5명을 추첨, 금성교과서(주)에서 펴낸 「뉴에이스英韓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 독서퀴즈는 오는 11일인 ‘책의 날’을 중심으로 출제했습니다. 지난 87년 “책은 마음의 발을 갈아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슬기의 높이를 돋군다”로 시작되는 「책의

날을 받드는 글」을 제정하고 기념상을 세우면서 선포된 이래 제4회째를 맞는 올해 책의 날에는 ‘90서울도서전’ 등 여러가지 출판행사가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1

책의 날로 제정된 10월11일은 다음중 어떤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졌겠습니까?

- ① 고려대장정이 완성된 날
- ② 고려시대 국립대학인 국자가에 서적포가 설치된 날
- ③ 조선시대에 금속활자를 주조하기 위해 주자소를 설치하여 활자주조를 시작한 날
- ④ 조선말기에 한성순보를 발행했던 출판기관 박문국이 설치된 날
- ⑤ 최초의 민간출판기구인 광인사가 문을 연 날
- ⑥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창립된 날

문제2

우리나라 출판문화를 가리킬 때 흔히 ‘한국출판130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1300년’이란 표현이 암시하는, 우리나라 출판사의 기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음중

어떤 것이겠습니까?

- ① 남명천화상송중도가
- ② 불설아미타경요해
- ③ 무구정광대다라니경
- ④ 비해당선반산정해

제68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8호(9월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48통, 이중 정답자는 21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문제1

- ① 웃어른
- ② 윗도리
- ③ 뜬계꿈
- ④ 현재방식의
- ⑤ 영산강물이 위험수위를 넘기는
- ⑥ 대부분

문제2

- ① 수마가
- ② 문제들
- ③ 원하는 만큼 / 원하는 것을
- ④ 고통을, 신음하셨다
- ⑤ 독일뺨집에서
- ⑥ 추진한게, 바꾸어가고
- ⑦ 2명에게, 등을
- ⑧ 목돈, 기회가 있어 / 계기가 있어
- ⑨ 그런 식으로 몰려와 항의한다고 일이 풀어지는 것도
- ⑩ 잘 드러내는 / 잘 보여주는

당첨자

홍석진(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 2/3 대도부장내)

김동훈(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48-7-45)

김효정(인천시 남구 주안 4동 12/2 251-7 제일전기 2층)

민옥례(서울시 봉천 3동사무소)

홍연숙(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60-2)

출판저널

통권 제70호/1990년 10월 5일 발행

발행인—鄭鐵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李權雨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鎭
업무·광고—李震天 崔炳天 金允淳 金俊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산사자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평의원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炳翼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愼鍾廈	安秉永
安輝游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瑤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穰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秉鍾	鄭雲映	鄭晉錫
鄭鎮弘	曹大鉉	崔鍾庫	崔相震
韓勝憲	許顯烈	洪延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예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우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계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